

- 주요 뉴스: 미국 8월 근원 PCE 가격지수, 예상치 상회 연준 인사들은 통화긴축 지속 의지 표명
 - 유로존 9월 물가상승률(yoy), 10.0% 상승하면서 집계 이래 첫 두 자릿수 기록
 - EU, 에너지 황재세 부과 및 전력 소비 감축에 합의. 가스 가격 상한제는 논의 지속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일에 대규모 공격 및 점령지 합병 공식 선언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8월 PCE 가격지수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영향

주가 하락[-1.5%], 달러화 약보합-0.1%, 금리 상승[+4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미국 인플레이 압력 지속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리테일, 은행 등 일부 섹터 중심 저가매수로 1.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인플레이 우려에도 분기말 포지션 조정 및 차익실현으로 약보합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1%, 0.2%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지속 전망으로 상승
독일은 유로존 인플레이 사상 최고치 기록에도 불구하고 7bp 하락

※ 원/달러 1M NDF환율(1439.5원, 10.1원) 0.7% 상승, 한국 CDS 하락

		9/30일	9/29일	전일대비			9/30일	9/29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3,585.6	3,640.5	-1.51%	국채 금리 10y	미국	3.83%	3.79%	4bp
	유럽	387.85	382.89	1.30%		독일	2.11%	2.18%	-7bp
	중국	3,024.4	3,041.2	-0.55%		영국	4.09%	4.14%	-5bp
	일본	25,937	26,422	-1.83%	CDS 5y	한국	58bp	61bp	-3bp
	한국	2,155.5	2,170.9	-0.71%		중국	108bp	114bp	-5bp
환율	달러지수	112.12	112.25	-0.12%	위험 지표	EMBI+	-	486	-
	유로화	0.9802	0.9815	-0.13%		VIX	31.62	31.84	-0.69%
	엔화	144.74	144.46	-0.19%		WTI유	79.49	81.23	-2.14%
	위안화	7.1159	7.1250	0.13%	원자재	구리	341.3	341.8	-0.16%
	원화	1,430.2	1,438.9	0.61%		금	1,660.6	1,660.5	0.0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8월 근원 PCE 가격지수, 예상치 상회. 연준 인사들은 통화긴축 지속 의지 표명

- 미국 8월 근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동기대비 4.9% 상승해 전월(4.6%) 및 예상치(4.7%)를 상회했으며, PCE 가격지수는 6.2%로 예상치(6.0%)를 상회했으나 전월(6.3%)보다 소폭 하락. 미국경제의 2/3을 차지하는 개인소비지출은 7월 0.2%에서 8월 0.4%로 반등
- 한편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인플레이 수준을 낮추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설부르게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 통화정책은 물가안정 회복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인플레이 추가 상승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
-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금년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이며 인상폭은 경제 지표에 의해 결정된다고 언급. 연준의 최우선 목표는 인플레이션 하락이며, 주택시장, 공급망 등에서 과열된 경기가 하강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는 연준에 긍정적 뉴스라고 부연
- 토마스 버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도 통화긴축이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기까지 시간이 걸리며, 미국 인플레이션 진정 전까지 금리인상과 B/S 축소를 지속할 것이라 강조
- 8월 CPI에 이어 PCE 가격지수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연준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통화긴축 의지를 표명하면서 risk-off 지속. JPMorgan은 중앙은행들의 정책 오판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으며, BofA는 연준 통화긴축에 따른 신용시장 기능 저하 가능성을 경계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유로존 9월 물가상승률(yoy), 10.0% 상승하면서 집계 이래 첫 두 자릿수 기록

- 유로존 9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10.0% 상승하면서 11개월 연속 '97년 집계 시작 이후 최고치를 경신.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변동성이 주요 원인이었으나 서비스부터 산업재까지 전반적으로 상승. 특히 에너지 가격은 전년대비 40.8% 급등
-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ECB의 10월 75bp 금리인상 전망이 강화. 시장에서는 ECB 예치금리가 연말 2%, 내년 봄 3%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 중(Reuters)

■ EU, 에너지 황재세 부과 및 전력 소비 감축에 합의. 가스 가격 상한제는 논의 지속

- EU 27개 회원국은 에너지 기업들에 초과이익에 대한 황재세 도입과 피크시간대 전력 소비 5% 감축에 합의. 다만 가스 가격 상한제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논의를 지속할 방침

■ 미국 의회, 회계연도 마감 및 FY2023 임시 예산안에 합의

-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재난 위기 대응 예산, 우크라이나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된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11월 중간선거 체제로 돌입.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 논의, 국방수권법안 처리 등은 선거 이후 재개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점령지 합병일에 대규모 공격 단행 및 점령지 합병 공식 선언

-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러시아가 남부 자포리자에서 민간인 차량 행렬에 포격을 가해 90여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 중부 드니프로, 남부 미콜라이우 및 오데사에서도 포격으로 사상자가 발생
-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 4개주의 러시아 합병을 선언. 이에 우크라이나는 절대 러시아와 협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EU-NATO는 합병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탄. 미국은 러시아 당국, 의회 인사, 단체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고 내주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패키지 발표

■ 스위스 중앙은행, '22.2분기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외환 매도개입을 단행

- 지난 수년간 프랑화 강세를 막기 위해 외환 매입 정책을 지속한 스위스 중앙은행(SNB)은 '22.2분기에 500만스위스프랑(\$512억) 규모 외환 매도 개입을 단행했다고 발표. SNB는 개입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금주 프랑화 강세가 인플레이션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표명

■ 중국 외환시장 자율규제 기구, 은행들에 인민은행 기준환율 수준에서 거래를 요구

- 중국 외환시장 자율규제 기구는 은행들에 역내 외환시장 개장 직후 인민은행 고시 기준 환율 수준에서 거래할 것을 요구. 인민은행은 위안화의 일일 변동폭을 고시환율의 2% 내외로 허용하고 있으나, 금주 위안화가 약세 방향으로 범위를 이탈하면서 동 지침이 발표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30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근원 PCE 가격지수(전년동기대비): 4.9%, 7월(4.6%), 예상치(4.7%)
- 미국 8월 PCE 가격지수(전년동기대비): 6.2%, 7월(6.3%), 예상치(6.0%)
- 미국 8월 개인소득(전월대비): 0.3%, 7월(0.2%), 예상치(0.3%)
- 미국 8월 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0.4%, 7월(0.1%), 예상치(0.2%)
- 유로존 9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기대비): 10.0%, 8월(9.1%), 예상치(9.7%)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29, E-mail skkim@kcif.or.kr